

완주 로컬푸드 가공품 품질관리 나선다

전북대 HACCP지원단과 업무협약 체결 군, 성분 분석자금 지원·직원 교육 실시

완주군은 4월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내 가공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대학교 HACCP지원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로컬푸드 가공품 품질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완주군 로컬푸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직매장 유통 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로컬 가공품 생산 및 판매로 생산자와 소비자 신뢰감 구축을 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가공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성분분석 자금을 지원하고, 직매장 납품 가공업체와 매장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직매장에 유통되는 모든 가공품에 대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관리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김중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완주군 로컬푸드 가공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납품업체 및 매장관리 직원의 전문성이 향상되어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에 유통 중인 가공품은 효자동 직매장이



약 500종으로 가장 많으며 관내 100여 개 업체가 납품하고 있다. 완주군은 기존에 납품업체별 식품 위생법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를, 이번 로컬푸드 가공품 품질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로컬푸드 가공품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탄력

달란트마을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협약 체결

장수군은 24일 오전 10시 군청 강부회의실에서 장수한누리전당 상주단체인 (사)달란트 마을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실시한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장수군이 최종 선정되어 체결된 것으로 군은 지난달 '전문예술법인 (사)달란트마을'과 공모에 지원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됐다. 이에 군은 (사)달란트마을과 함께

창작뮤지컬 '논개 꽃으로 피어나다'와 우수레퍼토리 2개 작품 문화나눔 프로그램 등을 장수한누리전당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예술법인 (사)달란트마을은 지난 2013년부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등 7개의 국가공모사업을 장수군과 함께 진행해온 바 있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도내 최우수단체인 전문예술법인 (사)달란트마을을 상주단체로 유치한 만큼 군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해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장수 건설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간 상생 협력을 통해 안정적 환경 속에서 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공연장 운영 활성화,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사업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강소농 육성 지원

농업경영개선 실천교육 실시

무주군은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의 주역이 될 강소농 육성을 위해 24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농업경영개선 실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가들의 소득향상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6년 강소농 농업경영체 신청 농업인 50명이 참석했다.

농촌진흥청 강소농지원단 정성욱 강사는 △강소농 사업 추진 배경과 과정, △경영·실행계획서 작성 요령, △우수사례들을 소개하며 경영비 절감과 품질향상, 고객확대, 가치증진 등에 관한 내용들을 공유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이종원 기술기획담당은 "이번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1박 2일 간 심화교육과 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아울러 자를 모임체 활동

등을 지원해 강소농 지도자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정에 요원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소농 실천교육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강소농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간접문 위원이 현장컨설팅을 진행하며 농사현장의 문제점과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한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맞춤형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농가와 전문 기술위원들과의 일대일 컨설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세계 물의 날 기념 진안군, 용담호 정화활동 펼쳐

진안군은 24일 군청 광장에서 '제24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갖고 용담호 상수원인 진안천과 상원천 주변 하천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는 진안 장날을 맞이해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진안경찰서를 비롯한 유관 기관은 물론 환경단체, 사회단체 임직원들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용담댐 관리단)에서는 행사 참여자들을 위해 병인물(500ml) 200병과 친환

경비수 400개 등을 후원했다. 이항로 군수는 "오늘 행사로 물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전북도민의 생명수인 용담호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없이 주민 자율적으로 맑고 깨끗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 안 쓰는 친환경 우렁이 농업 확대와 쓰레기 3NO 운동 정착, 다목적 수변림 및 인공습지 조성으로 청정 진안고원을 브랜드화 해 나가겠다"며 진안군민의 실천의지를 널리 알리고 결집시켜 청정 용담호 상수원 수질관리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나무 나눠주기 행사 1인당 2그루씩 선착순 분양

진안군은 24일 제7회 식목일을 맞아 '군민이 행복한 나무심기'라는 주제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진안시장 광장에서 가정이나 자투리땅에 심어 쉽게 가꿀 수 있는 유실수인 매실과 대추나무 2600여주를 한 사람당 2그루씩 선착

순으로 무료 분양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로 숲과 나무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봄철은 산불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3월에서 5월까지의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다 산불이 발생해 소중한 산림이 소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기자



'따뜻한 봄날 무주에서 야영을'

반딧불청소년 야영장 개장

무주군은 설천면 반디랜드 내 반딧불청소년 야영장을 오늘 개장한다. 이용료는 일반 야영객이 2만 5천 원 ~ 3만 5천 원(전기사용료 포함)이며 초등학생이 3,300원, 중·고등학생 5,500원, 대학생 7,700원이다. 반딧불청소년 야영장은 부지면적 26,743㎡ 규모에 4영지로 구성돼 있으며 영지마다 개수대와 화장실,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반디랜드 내에 위치해 있어 곤충박물관을 비롯한 천문과학관과 백운산 생태 숲, 아이 물놀이장(7~8월) 등을 연계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날씨가 풀리면서 야영장 이용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울해의 관광도시 무주에서의 야영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즐기다 가실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063-320-5641)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블리스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 장수군 나뭇리조트서 개최

전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우천규)는 24일 장수군 나뭇리조트에서 14개 시·군의회 의장단과 김윤식 장수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어업 현실을 무시한 저운저장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과 고향기부제 도입 건의안 등 총 7건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의정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이날 장수군의회 오재만 의장은 "차 가공식품에 대한 합법화와 단속을 중지하고 농가에 더 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일정한 책임을 기부하면 국세로 그만큼 공제해주는 고향기부제"를 건의하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내년도 81건 1854억원 국가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진안군은 24일 신규사업 50건 국비 1,540억원과 계속사업 31건 314억원 등 총 81건 1,854억 원의 2017년 국가예산 대상사업에 대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이근상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이 참여해 진안군이 발결한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동향 및 추진상황,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근상 부군수는 "전북도청 및 정치권과 공조하여 예산편성 순기별 적절한 대응을 통해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주문하고 "앞으로 군수, 부군수 등 지휘부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기자

무주경찰, 노인 교통안전 교육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덕상은 24일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주읍 노인 종합복지관 소강당에서 65세 이상 노인층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란 주제로 흔히 알고 있으면서 놓치기 쉬운 내용으로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서다·보다·걸다)",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가장 자리를 걸을 때 차와 마주보며 걷는 법", "야간 보행시 밝은 옷 착용" 등의 실생활에 유용한 팁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김덕상 계장은 "보행자 사망사고의 56.4%가 노인 보행자 사고이기 때문에 노인 교통안전 교육을 최선을 다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